

“美 자동차 관세 현실화면 광주경제 위기”

수입 관세 25% 부과 여부 18일 결정 기아차 광주공장 전체 생산량 39.8% 美에 수출 수출 못하면 광주 3개 공장 중 1곳 문 닫아야

지역 경제계가 미국 백악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 비율을 결정할 시기가 열흘 앞(18일)로 다가오면서다. 만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올리면 기아차는 대미 수출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이고, 광주 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대미(對美)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이는 백악관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

부를 결정할 시기와 겹치면서 기아차와 지역 경제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상품에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최대 25%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고, 그 결정 시한이 오는 18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이 되면 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보충 조사를 지시한다든지 등 어떤 방식이든 발표를 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 폭탄’ 발표가 압박하면서 정부는 유명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

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한다. 자동차 232조와 관련해 한국은 조치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자동차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수입차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80만대 이상 완성차를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광주공장서 생산하는 쏘울과 스포티지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쏘울 9만3558대, 스포티지 8만7657대 등 총 18만1215대가 미국 시장으로 수출됐다. 이는 지난해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45만5252대 중 39.8%에 해당하는 2017년 미국 수출 비중 37.3%보다도 컸다.

특히, 쏘울은 지난해 전체 생산량 15만6716대 중 59.6%인 9만3558대가 미국으로 진출했다.

올해 초 쏘울 부스터 출시에 따른 신차

효과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여서 관세 충격은 더 치명적일 수 있다. 가격 경쟁력 상실에 따라 수출을 접게 되면 광주에서 가동 중인 3개 공장 중 1개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된다.

광주공장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 광주 경제에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광주시 제조업 종사자의 10%, 총 생산액의 32%, 총 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아차 광주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광주지역 1차 협력업체 50여 곳을 포함해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2·3·4차 협력업체 수 백 곳의 물량 감소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부분 지역 협력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기아차 광주공장의 급격한 물량감소는 자칫 협력업체의 절도산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68.01 (-8.98)	↓ 금리(국고채 3년)	1.72 (-0.01)
↓ 코스닥	745.37 (-8.08)	↑ 환율(USD)	1169.40 (+2.90)

영광 삼성굴비·나주 신흥장어·여수 구백식당 중기부, 전남 3곳 ‘백년가게’ 선정

영광 도소매업체인 삼성굴비와 음식점 나주 신흥장어, 여수 구백식당 등 3곳이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첫 ‘백년가게’ 35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백년가게 육성 사업을 통해 81개 업체를 선정해 매출과 고객 증가를 지원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12곳, 음식점 23곳이다. 지역별로는 경남 6곳, 인천·대전·충북·전남·전북·부산이 각 3곳, 서울·강원·경기·충남·대구가 각 2곳, 경북 1곳 등이다.

전남에서는 영광의 도소매업체인 삼성굴비(굴비·선어), 음식점 나주 신흥장어(장어구이)와 여수 구백식당(사대회·생선구이) 등 3곳이 포함됐다.

전북에서는 도소매업체인 전주 신도불이(식품잡화)와 남포소리사(전자제품), 음식점인 익산 무진장갈비촌(갈비탕·한우특수모듬)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선정된 업체들에 백년가게 확인서와 현판을 제공하고, 홍보와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농민회 “공급과잉 양파 수급정책 나서라”

재배면적 늘어 생산량 30% 증가
올해 양파 공급과잉이 예상되면서 농민들이 정부에 가격안정 조치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과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지난 7일 ‘항상 한발 늦은 대책으로 뒷북 행정하는 농식품부는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양파 수급안정 정책을 비판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양파 1방(1.5kg) 가격은 3108원으로 지난 주 3460에 비해 10.2% 급락했다. 1년 전 같

은 달 가격 3495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전농 측은 생산량이 최대 30%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평년보다 증가한 재배 면적의 일정 부분을 생육 단계에서 축소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중·만생종 양파는 6000t, 마늘은 3300t 물량을 가격안정제를 활용해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농은 ▲수확기 전 시장 격리 방안 마련 ▲생산량 10~20% 사전면적 조절 ▲2만5000t 즉각 조절 ▲전체 생산량 20% 이상으로 채소생산안정제 기준 상향 ▲대체작물 재배 시 차액보전 등 지자체 역할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박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역상공인들 “명품기업에 못 들어가면 죽으란 말이나”

스마트공장 지원 등 소외 광주시장과 간담회서 쓴소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싶은데 부담이 큼니다. 전남은 국비 50%·도비 30%를 지원하는데 광주는 국비만 50%를 지원하고 시비는 명품중소기업에만 지원합니다. 명품중소기업은 그동안에도 많은 혜택을 받아 성장했는데 또 그 곳에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명품에 못 들어가면 죽으란 말입니다. 소외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조병진 광우R&A 대표>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침체가 길어지며 지역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로를 여는 길은 생산과 투자, 고용의 주체인 상공인들이 분연의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8일 오전 11시30분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과 지역 상공인들 40여명이 이용섭 광주시장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시장과 유관기관 대표들이 지역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지역 상공인들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 ▲광산업집적화단지 재입도 규제 완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기업 자부담 완화



이용섭 광주시장과 지역 상공인들은 8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역 기업들의 경영 애로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광주상의 제공>

▲지역 자동차 전문교육센터 구축 ▲지역 내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제고 ▲산업단지 입주업체 증대 완화 ▲기업환경 개선(배수로 정비, 우수관 교체) ▲청년창업 및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애로를 털어놓았다.

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은 6월 말로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광산업집적화단지는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경우 분양하고, 광융합 업종 입주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건의사항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광주시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며 “꼼꼼히 메모해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광주 첨단산단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광·의료 기업인과 광주테크노파크·한국광산업진흥회·한국광기술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를 들

고, 광융합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광·의료 기업인들은 ▲성장 둔화세인 광산업의 성장 방안 ▲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확대 및 운영 개선 ▲임대단지 운영 개선 및 입주 업체 확대 ▲광융합산업 인력 양성 지원 ▲첨단3지구 광·의료단지 입지 조정 ▲지역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전 기술혁신 최고 영예 ‘CIO 100 어워드’ 수상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지난 1일 제32회 ‘CIO 100 Awards’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100 Awards’는 IT 분야 관련 혁신성과가 탁월한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며,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IDG(International Data Group)가 50여명의 외부 전문가의 1차 심사 및 자체 전문가의 2차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한전은 디지털변환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객에게 새로운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비즈니스 플랫폼(EN:TER)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8월 21일 미국 콜로라도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EN:TER는 한전이 만든 에너지 분야 최초의 오픈 플랫폼으로 일반고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포함한 사업자, 연구소, 대학 간의 에너지 관련 비즈니스 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에너지 분야 서비스 사업자와 수요자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비즈니스 오픈마켓과 생활 속에서 에너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제공 포털 기능이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디지털 변환’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에 부응해 플랫폼 기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및 데이터 분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5월호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역사의 아픔 기억하는 여행

다크 투어리즘

- 아플수록 바라보자, 역사의 통증
- 5·18은 살아있다, 몸으로 배우는 역사
- 기억의 예술관, 베를린

5월 기획

‘임을 위한 행진곡’과 ‘라 마르세예즈’ 지역 교사들이 펴낸 5·18이야기

해외문화 현장③
편안한 ‘만인의 미술관’ 런던 내셔널 갤러리
워라벨시대, 문화관광이 뜬다②
소소해서 더 예쁜 문화 공간들 담양

소설가 김용태가 전하는 ‘내 이웃의 소확행’④
김지영씨, ‘나에게 걸어가는’ 생활여행자 “고무대야에 누워 별 보던 추억이 반짝여요”

예향 초대석

한국형질문화원 원장 조용진

한국인 얼굴 연구 40년 ‘얼굴학자’
문양이 숨 쉬는 문학을 찾아서⑩
한국 근대 풍자문학 대표작가 근산 채만식문학관

화제의 전시

남도미술 뿌리Root &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강재운 시인의 남도의 섬과 토속음식④
꼬막·석화 유명한 장도 인생 굴 요리 ‘피굴’

지역 축제

5월엔 가족과 함께 더 즐거운 축제
전시 리뷰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용미술관 <맞이한 사람들, 끝나지 않은 이야기>전

배움의 대중문화 X파일④

인성교육 부재 아이들 육성 시스템
예향이 만난 이 사람
KIA필승맨, 고졸 2년차 투수 하준영

종포드 VS. 하워드 흑스

서브캐처 시대 미국을 그린 영화 거장
다미의 꿈 생애미미에 여음·유영희
축제장으로 나온 황금귀췌 생명 배우는 생태체험의 명소